

대학 홈페이지 관리 계정 도용 교외접속 차단 원인규명 진행중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우리학교 홈페이지(www.khu.ac.kr) 관리자 계정 도용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관리자 명의로 '경희대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가까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으로, 두 게시물은 4시간 동안 각각 1만 3,000건과 9,80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초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이나 학교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알려져 추가피해를 우려했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관리자 계정을 단순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지원처 측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권한은 홈페이지 관리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보지원처는 현재까지 범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차원의 1차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대응을 결정할 계획이다. 출판문화원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해당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을 의뢰할지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대학 외부에서의 관리자 페이지 접속은 모두 차단된 상태이며,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보안 역시 강화시켰다"라고 말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후속조치인 것이다.

한편 게시물이 약 4시간 동안 방치돼 허술한 대응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웹 기획과 페이지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출판문화원이지만 보안전문 인력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일에는 휴일로 인해 업체 측과의 연계 대응 과정이 지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출판문화원 측은 대학본부에 보안 전문 인력 충원 요구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총여도 '할 수 있다'는 신뢰 회복 이뤄야"

총여학생회 인식도 조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양성평등연대 김동근(Postmodern음악학 2008) 대표와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남승기(스페인어학 2012) 회장의 인터뷰가 지난 9월 대학주보 제1576호에 게재됐다.

총여와 생리공결제 폐지를 주장하는 김 대표와 이를 반박한 남 회장의 인터뷰내용은 대학주보 온라인에서 6,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대학주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1만 명이 열람했다. 그러나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어진 논의는 예상보다 예민하고 감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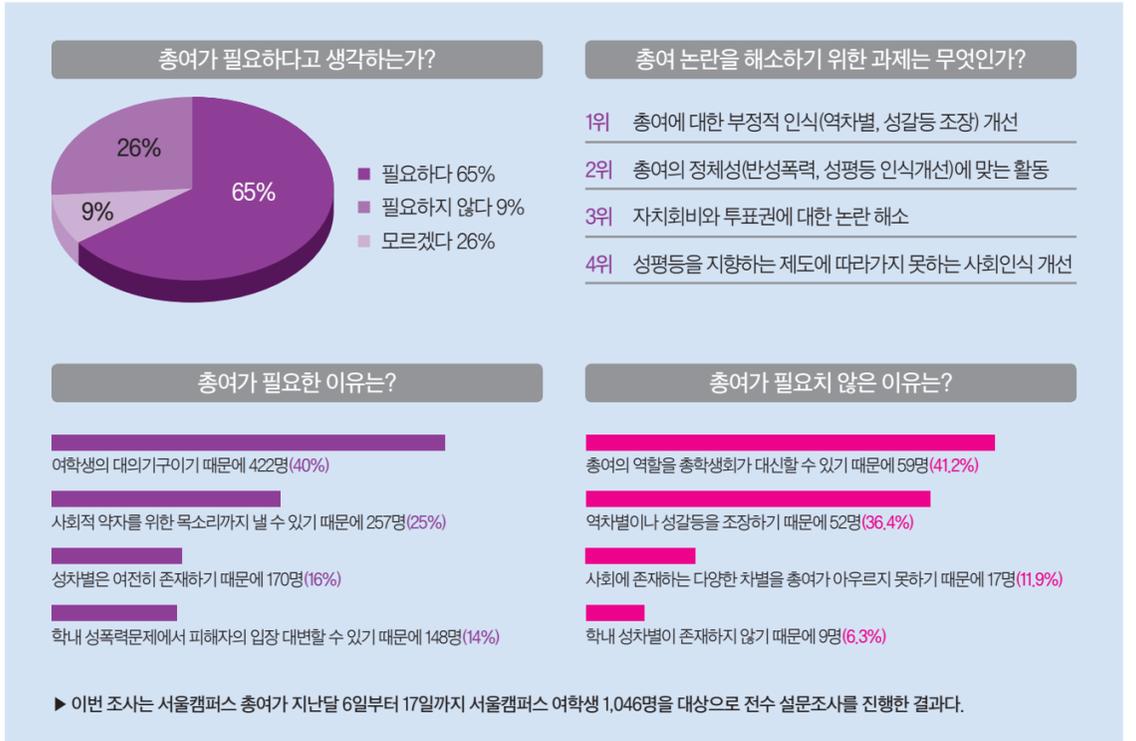
이런 와중에 서울캠퍼스 총여가 자치회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100% 참석을 기록해 개근상을 받았다.(음악대학 학생회 역시 두 상을 모두 수상했다.) 자치회비 콘테스트와 개근상이 상징하는 것은 서울캠퍼스 총여가 '청렴하게' 운영됐고, 또 성실하게 대표 표지를 수행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총여의 역량 문제에서 이들은 자유로운 것일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 그래서 서울캠퍼스 총여 환경(정치외교학 2011) 회장과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부회장을 지난달 30일 만났다.

-자치회비 콘테스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치회비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낸 소중한 돈이다. 때문에 쓸 때마다 논의를 했다. 정말 긴장하며 썼다. 돈의 목적과 의도가 학생들이 정당하고 또 투명한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했다. 첫 번째 공약이 '자치회비의 투명한 공개'였는데, 수상에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다."

-중운위에 32회 모두 참석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개근'할 수 있었던 동력이 궁금하다.

"지난해 총여가 공석이었던 만큼 올해 행보가 더 중요했다. 신뢰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역시 성실성과 진실성이었다. 한정된 시간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다. 때문에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특히 총여의 특성상 기증, 즉 학생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올라오는 창구가 제한된다. 중운위에서 다른 단과대학 회장을 통해 각 단과대학 별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더 열심히 참여했다."

덕담을 나누고, 본론을 꺼냈다. 총여 존



폐논란은 비단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당장 올해 홍익대와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바 있다. 서울캠퍼스 총여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여학생 1,046명을 대상으로 '총여 인식도 조사'를 진행했다. 직접 설문조사를 돌리며 진행한 전수조사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무엇인가?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5%였다. 총여가 논란이 되는 이유로 꼽은 것은 '부정적 인식'이 가장 많았고, '자치회비는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남학생에게 투표권이 없어서'가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에서 느낀 총여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은 결국 "총여의 활동을 바라다"는 점이다. 논란이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총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사회의 성차별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을 받지만, 학내에서는 '더 이상 학내 성차별'은 없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학교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위치한 작은 사회다. 때문에 학내에서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사회의 성차별 역시 해결하지 못한다. 제도적 지원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본다. 이제 제도를 넘어 의식의 진전을 이뤄

야 한다."
-남학생의 자치회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치회비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이 총여에 자치회비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학내 자치활동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납부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모인 자치회비를 총여도 분배받는 것이기에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총여가 여학생의 자치회비만 사용해야 한다면, 총동아리연합회부터 총유학생회, 교지편집위원회 등 모든 특별기구의 자치회비 문제로 불거진다."

-남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총여에 문제가 생키나?

"그렇다. 총여의 존립근거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다. 총여는 여학생을 대의하는 기구다. 다만 여성 '민'을 위한 기구는 아니다. 예를 들어 발걸음 앞에 걷는 여자가 뒤에서 걷는 남자를 흘금 쳐다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남성의 불편함 혹은 불쾌감이 여성에게 공감포기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나 여성의 탓이 아닌 사회적 구조 문제다. 온전한 성평등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가야 한다. 그 '함께 가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뒤쳐진 여성의 권리를 대의하

고 있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일인데 상대 결로 물고가는 것이 안타깝다."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아이러니를 느꼈다. 총여가 말하는 '총여가 해야 하는 일'은 '인식개선'이다. 제도가 아닌 생각의 변화다. 이를 위해 총여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여학생조차 보다 분명한 활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활동은 '행사' 중심으로 총여의 활동을 축소시킨다. 다시 총여의 존재이유가 공격받는 배경이 된다.

이에 대한 총여의 답은 '성취'였다. "총여가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총여의 활동은 총여를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지난해 공석의 부담 때문이었다. 그래서 총학생회처럼 눈에 띄는 변화, 예를 들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기숙사 문제에서 적극 나서는 등의 일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총여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신뢰가 회복돼야 총여의 필요성도 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여학생의 설문조사 결과는 '폐지'가 아닌 '개선'이었다. 개선을 위한 일은 총여가 주장하는 대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 시작점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히 총여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다.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 02-963-4874~6 | 11월 27일 278-810023-98605 | khsa0028@khu.ac.kr
 ☎ 031-201-3190~1 | 11월 27일 428-141962-19304 | future.khu.ac.kr

취업의 길을 찾아!

- 삶의 길을 묻는 그대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대 : 4학년 11 취업진로 지원
- 대 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도움 줄 내용 : 입사희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재무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도움미 : 노동성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신청
 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성 팀장(rohds@khu.ac.kr) 윤재훈 계장(jhmoon@khu.ac.kr)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가능
- 장 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1월 첫째 주(11.3~11.7)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현대백화점(현대총소빙 채용설명회)	취업진로지원처 공지사항 참조	11.3(월) 10:00~12:00	오비스를 111호
현대백화점(현대총소빙 현장면접)	취업진로지원처 공지사항 참조	11.3(월) 13:00~17:00 11.4(화) 10:00~17:00 11.5(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 (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상담유형	컨설팅팀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팅팀 4명	월~금 (각 컨설팅팀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를 354호~356호 제법101~2호	종합정보시스템
집단 상담	이중주 교수 (취업처 연구실장) 공운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내요관 103호	*수업/성적/상담, 매뉴에서 신청 (컨설팅팀별)
On Line 상담	한성명 팀장 (취업진로지원처)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8(총 28)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휴식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3. 취업관련 책자 배부 (나는 이력서를 썼다)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19번 창구에서 학생증 제시 후 수령 (1인 1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 My Career Design 참가자 모집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은 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진로 준비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대학생활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Vision을 수립,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워크숍에 경희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주최 : 취업진로지원처(서울캠퍼스)
2. 교육명 : 자기이해 및 맞춤형 진로개발 워크숍 - My Career Design
3. 일 정 : 신청자는 집단워크숍 및 1:1 상담 모두 참여하여야 함
4. 대상 및 모집인원 : 경희대학교 재학생 40명 (1~2학년 우선 선발)
 ※국제C 학생도 신청 가능 함
5. 신청 및 예치금 납부 방법
 나.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신청 - 해당 프로그램 신청
 나. 예치금납부 : 예치금 5만원
 - 예치금 계좌안내 : 하나은행 278-910011-91404 본인명의
 - 신청소서의 상관없이 예치금 입금 순으로 신청이 완료됨
 - 반드시 연수신청을 한 후에 입금해야 함(예치금만 먼저 입금할 경우 신청처리 되지 않음)
 * 예치금은 '참가자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교육을 수료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본 교육은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육으로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면, 학생개인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 다. 신청확인 - 개별 연락
6. 신청기간 : 2014. 10. 21(화) ~ 11. 11(화) 까지(선착순 접수)
7. 참가자 의무사항
 가. [교육 전 1회]Strong 직업준비검사 응시, [사전]취업준비도[JUST]검사 실시
 -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응시방법은 40명 접수 완료 후 문자(또는 이메일)로 안내 예정
 나. [교육 후 1회]K-CESA(대학생 핵심역량 진단평가), TOCT(비판적사고력 평가), [사후]JUST 검사
 -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응시방법은 교육 수료 후 문자로 안내 예정
 - 예치금은 K-CESA(1회), TOCT(1회), JAST(검사2회) 모두 응시 확인 후 환불
 - Strong 직업준비검사 응시(온라인 검사-약20분), JAST(온라인 검사-약10분)
 - K-CESA(온라인 시험-약2시간 소요), TOCT(오프라인 시험-약2시간 소요)
 ※시험 일시 및 장소는 개별공지
- 다. 무단 결석 및 지각 금지 : 무단 결석 및 지각 시 예치금 환불 불가
 라. 참가 취소할 경우 2014. 11. 11(화) 15시까지 취업진로지원처로 연락바랍니다.
 ※Strong 직업준비검사 응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8. 교육 세부내용(요약)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
 나. 문의사항 : 전화: 02-961-0167~8(윤필영, 최선규), 이메일: job@khu.ac.kr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